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

겨울이 성큼 다가 와 마음을 설령하게 합니다. 이곳은 매년 10월 15일에 정부의 중앙공급 난방으로 겨울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학교안으로 이사 온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출퇴근이 없어 편하고 시간도 많이 벌고 학교 관리도 잘 되고 사과나무와 사과도 즐기고 3가정이 같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퇴근이 없어 늘 근무태세로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도시와 조금 떨어진 관계로 무선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뿐입니다.

2012년 9월 새 학년도 시작부터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풍성합니다.

1. 선교관 완공 - 6월 2일 입주 후 공사를 계속하여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교무처장, 실천과장 3가정이 상주하고 2층에 학장실, 1층에 게스트룸이 있어 강사님들이 머물게 되어 기숙사 방은 모두 학생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관은 건물 외형도 예쁘고 절반이 사택이므로 내부도 잘 꾸밈습니다. 건축에 동참해 주신 교회와 개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제6회 졸업/입학예배 - 지난 9월 10일 재학생, 신입생, 선교사님들 졸업생 가족들 120명정도가 참석하여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졸업생은 13명이었고 신입생은 기도한 대로 21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대전 새누리교회 이병균 목사님은 수술 회복중 불편하신데도 졸업설교와 강의를 해주셨고 김영민 이사장님은 졸업생들에게 주는 기념품을 보내주셔서 졸업생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11명으로 개교한지 8년만에 6회의 졸업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졸업생 수도 40명이나 주셨습니다.

3. 사모학교 개설 - 10월 2일부터 목회자 사모 대상으로 "사모학교"를 개설하여 1기생 32명이 입학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저희 신학교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모교육 과정입니다. 목회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사모교육도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이 과정은 1년과정으로 6번 (2박3일)와서 12과목을 공부하는데 첫 수업을 마쳤습니다. 14명이 숙소에 글을 남기고 돌아 갔는데 "이런 과정을 오래동안 기다렸다", "사모가 할 일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남편과 오기전까지도 사역으로 다투고 왔는데 문제가 풀리는 것 같다",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다", "신학교가 섬기는 것 보니 섬김을 알 것 같다", "너무 필요한 공부다", "사모끼리 털어놓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첫 모임부터 많이 울고 모두가 얼굴이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한번 모이는데 12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지만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들의 역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합니다.

4. 기숙사가 찼습니다 - 학생 최대 60명 수용을 목표로 시작한 신학교는 이번 새학기에 목회자 양성 과정만 59명이 되어 기숙사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사님들은 선교관에 머물게 되어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숙사, 강의실, 예배실 모두 학생으로 가득 찹니다. 신학생들은 우크라이나에서 29개지역, 몰도바에서 2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새 학년 도에는 고려인 신입생은 1명도 없고 모두 현지 교회에서 추천하여 보낸 우크라이나 인들 입니다. 고려인 전도와 목회를 위해서는 고려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 양성 과정의 재학생이 59명에 사모학교 학생 32명을 합하면 모두 91명이 재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 헌집 수리 - 100년이나 된 낡은 집이라 수리할 것이 많습니다. 수리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고치고 있습니다. 폴 성 부이사장님이 방문하여 현장에 와서 보고 모금 해보겠다고 하여 기도했는데 5,000불이 모금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성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리가 끝나면 홍세르게이 목사님이 선교관 스튜디오에서 이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벽과 바닥, 천정공사가 남았고 전혀 없던 화장실과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합니다. 보일러는 설치비가 예상보다 많아져서 300만원정도가 더 들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정도의 수리비로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 수리를 끝으로 학교의 캠퍼스 정비가 모두 끝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6. 동역자를 보내주심 - 교수요원 겸 강의 통역을 맡을 홍세르게이 목사님이 우즈베크스탄에서 저희 신학교로 옮겨 와서 전임으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홍 목사님을 초청해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9월 7일에 부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천사역을 담당하게 될 홍 목사님은 고려인 3세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즈베크스탄에서 신학교 사역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 신학생의 목회지 순회 - 금년에 3곳을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격려하였습니다.

1) 노보그라드 - 신학교에서 서쪽으로 250km 정도에 있는데 슬라바 전도사가 교회의 기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교인들이 열심히 3만불을 모아 500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건축비가 없어 중단한 상태입니다.

교무처장 부부와 같이 가서 장식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헌집을 맡아 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라도 좀 벌겠다고 ...

2) 블로달볼린스키 - 대학부 2학년인 알렉목사가 1년 반전에 개척하고 작은 집을 한 채 빌려 2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무처장과 저희 내외 4명이 같이 갔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20여명을 모아놓고 사모가 찬양인도를 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보며 은혜가 되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 카니브 - 드니프로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 대학부 2학년 블라디미르 전도사가 1년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시 문화센터안에 방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장년만 24명이 모이고 있으며 저희 내외와 통역 홍목사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장년만 18명이 참석하여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모두가 개척은 힘들다고 야단인데도 1년만에 24명을 모으고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대견하고 개척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

키예브에서 남 성호 이미숙 선교사 드림 <nahm530@gmail.com>

기도 제목

1. 사모학교의 입학생들이 끝까지 과정을 잘 마치도록
2. 선교관 준공검사가 잘 끝나도록
3. 옛집이 겨울전에 수리를 끝내고 보일러 공사도 잘 마치도록
4. 신학교의 운영비가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고 차량도 바꾸어 주시되도록
5. 저희 신학교가 우크라이나 교회들의 필요를 채워줄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